

“六行 생활화하는 참 인재 배출”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초대총장 손 제 석 씨

— 위덕대학교 초대총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저에게 종단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위덕대의 초대총장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먼저 종단의 원로 스승을 비롯 모든 종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불교계에서 동국대에 이어 두번째 종합대학으로 개교하게 되는 만큼 불교의 근본 이념에 입각한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한걸음 더 나

신조입니다. 위덕대학교는 이런 점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될 것을 자부합니다. 한마디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 위덕대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학과 증설, 대학원 설치등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수요 인터뷰

아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대학으로 꾸러 나갈 생각입니다.

교계 두번째 종합대학

— 오랜동안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으로서 교육발전에 기여해 해주셨습니다. 위덕대의 설립배경과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종단은 그동안 서울 진선여중고, 대구 능인중고를 중심으로 불교이념에 입각한 중등교육발전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종단은 회당종조의 뜻을 받들어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 약 력**
- 31년 경북 포항생
 - 56년 서울대 정치과 졸
 - 76년 서울대 정치학박사
 - 59~82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73년 남북적십자회담 지문위원
 - 80년 국제정치학회 회장
 - 82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85~87년 문교부장관
 - 89~95년 회당학원 이사장

“교육·연구 질 높여 ‘불교 상아탑’ 모범 보일 터” 전자·통신 중점 육성...매년 학과 증설 계획

교육발사를 확대키로 하고 5년전 경주에 약 30여만평의 부지를 매입, 91년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 승인계획을 받아 공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위덕대는 불교학과를 비롯 인문사회계열 4개 학과, 공학계열 7개 학과 4백여명의 첫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개교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각종이 앞서서 각종 교육발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각종뿐 아니라 교계 전체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위덕대의 교육이념은 무엇입니까.

▲진리탐구, 인격도야, 이타자리의 3대 건학이념과 21세기의 선진통일한국을 이끌 인재육성, 과학기술혁신과 문화발전이 기여,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지역중심체로 성장코자 하는 3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덕대의 교육신조는 낱말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자의 확철한 교육

신조입니다. 위덕대학교는 이런 점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이 될 것을 자부합니다. 한마디로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 위덕대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학과 증설, 대학원 설치등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현재 우리 대학은 개교 첫해부터 2005년까지 1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영역분야는 매년 2~3개 학과를 증설해 최종년도에는 30여개 학과 5천여명의 학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4년 후부터 인문사회대학원을 중심으로 20여개의 대학원과 5개의 특수대학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분야를 연구센터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밀교문화연구소, 신라문화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첨단기술연구소 등을 설립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이타자리의 건학이념을 체질화하고 ‘육행(六行, 선정 지혜 인욕 정진 보시 지계)’을 생활화하는 참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지덕 겸비의 위덕인을 배출한다는 구상입니다.

— 위덕대가 밀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밀교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겠지요.

▲현재 동양철학, 밀교학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불교학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학과는 진각종 교역자 양성 학과로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교역자를 원할 경우 진각종비생 장학금 등을 비롯 최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대학은 일반 학문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밀교연구소의 중심으로 한국밀교를 재정립하는 학문적인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밀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위덕대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밀교학의 상아탑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한국밀교 학문 재정립

— 지난 85~87년에 문교부 장관을 지냈는데 현재 우리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양적 팽창을 지양하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학과가 많은 것은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의 수를 줄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질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수분야에 대한 지

원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덕대는 △정보화시대 구현 △세계화추세 대응 △지방화시대 주도 라는 3대 특성화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대학의 학과의 과반수 이상이 전기·전자분야와 정보통신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자부하는 대학으로 만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과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1일 개교하면 본격적으로 교육발사에 매진하시겠습니까.

▲위덕대학교는 총장 혼자만의 대학이 아니라 모든 불자들의 대학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뜻이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종근 기자



맹란자 <의. 불교인생수행일기> 상



분주하게 걸음을 놓았던 내 반백년 동안의 이력을 돌아보니 부처님 일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잊고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러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힘든 노정과 비색(否塞)한 고개를 넘어오면서 이만큼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게 모두 부처님의 바른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교가 무언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수승한 가르침인 것도 모르고 어미를 따라 처음부터 물속에서 태어나 살아왔던 새끼 물고기처럼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품을 받았던 것이다.

국민학교 4학년 때쯤이던가.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다. 어머니를 따라 몇번 기본 적이 있던 탑골공원(현 보문사)에 갔다가에 어린 걸음으로 절을 찾아나섰다. 절 마당 안으로 들어서니

람도 없고 참고서 또한 없어서 다시 남별당을 찾은 수박이 없었다.

“학식높은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조금 있으면 울타리나 기다리라”는 것이다. 밖이 어둑해지고 저녁공양이 끝나자 양복차림의 흰줄한 남자 한 분이 들어 오셨다. 광우(정각사) 스님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으니 1958년도, 나는 속명예로 2학년생이었다.

다생의 인연이 중했음인가? 광우스님이 정각사를 짓던 그 해에 우리 집은 바로 근처인 삼선교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남별당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친구와 돌아서 절을 찾았다. 나는 대학원이 되어 있었고, 스님은 먹물웃을 입고 계셨다. 삭발로 드러난 동그스름한 두상과 단아한 모습이 꼭 인상

합장하신 어머니 모습 ‘삶의 거울’

자작 희곡 ‘산비둘기’ 연출 맡으면서 불교 체험

열려진 문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고운 한복을 입고 합장하며 조용히 서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은 그대로 내 가슴에 응해가 되어 장차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위패를 모시고 다시 그 법당 안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어머니의 그 합장한 두 손안에 담긴 열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적이었다. 1960년 5월 아카시아 향기가 진동하는 어느 날이었다. 이것이 스님과 어머니의 두번째 재회였다.

스님의 서거에서 김동화박사가 지은 <불교학개론>을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그 당시는 실존주의 사상이 흥미하던 때라 카뮈나 사르트르의 책을 끼고 다녀야 했세나 하는 줄 알았다. 마침 나는 국어시간에 박종홍교수의 글 <실존주의와

空思想>에 관해 읽고는 분발심이 생겨 금강경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실존철학에 관해 물으러 갔더니 <금강경>을 보라는 아스파스의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온 박종홍교수가 귀국하자 곧바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요지를 추려서 “함께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위지문을 작성하여 똑같은 걸 열다섯부나 써 가지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의 종교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국문과 등에 우송하였다.

단종 양육이던 정각사 다다미방은 대학생들로 꽂았다. 김동화선생님을 모시고 마침내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군더더기 없이, 원칙적이고 본론에 충실한 선생님의 강의는 한말씀도 놓칠 것이 없으면 만 대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일요일이란 낭만과 자유를 구가하기에 쓰여질 시간이었는지 법당에는 빈 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공(空)에 관해 읽고는 분발심이 생겨 금강경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실존철학에 관해 물으러 갔더니 <금강경>을 보라는 아스파스의 말에 충격을 받고 돌아온 박종홍교수가 귀국하자 곧바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요지를 추려서 “함께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위지문을 작성하여 똑같은 걸 열다섯부나 써 가지고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의 종교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국문과 등에 우송하였다.

단종 양육이던 정각사 다다미방은 대학생들로 꽂았다. 김동화선생님을 모시고 마침내 <금강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군더더기 없이, 원칙적이고 본론에 충실한 선생님의 강의는 한말씀도 놓칠 것이 없으면 만 대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일요일이란 낭만과 자유를 구가하기에 쓰여질 시간이었는지 법당에는 빈 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 통신과정 00명
- 연구과정 00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주 5일 오후 7시 ~ 8시 30분까지
- 연구과정-주 2일 오후 2시 ~ 4시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2월 2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교과목 :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원전장독 I	선종사상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대승교사서	불교미술	천태론	유식철학
불과정	1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